

지역 소식통

정읍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대상 소통 간담회

정읍시가 11일 천사하이로즈에서 정읍시청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2020 정읍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는 지역 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체험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정읍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학생들의 소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장산 문화관광에 소재한 복합놀이시설인 천사하이로즈에서 개최해 간담회의 특별함을 더했다.

이날 총무과에서 근무한 정다훈 학생은 "시청은 굉장히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들이 친절해서 놀랐다"며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나들이 스탬프투어

고창군이 11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관광지 25곳을 선정해 고창나들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고창나들이 스탬프 투어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관내 관광지의 붐업을 조성하고 건강한 여행, 안전한 여행 즐기는 여행을 위한 관광 홍보 이벤트 방안으로 기획했다.

고창나들이 스탬프투어는 고창의 주요 관광지 중 총 7개소의 관광지를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하고 여행후기를 작성하면 완주기념품으로 고창군 농·특산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 대상 장소는 고창읍성, 고인돌유적지, 선운산 도립공원, 운곡압차르 습지, 고창갯벌센터, 화원농장, 상하농원, 구시포 해수욕장 등 26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모바일로 진행되는 이번 스탬프투어에 참여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내려 받아 회원가입 후 전북 고창군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자체 폭우 피해복구 올인

유진섭 정읍시장, 수해현장 찾아 재난대응 철저 당부

정읍시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최근 연이은 호우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와 하천제방, 산사태 지역 등 유실되거나 토사 붕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7일 호우주의보, 8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278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8일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지역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사진은 유진섭 시장이 정세균 총리에

유진섭 시장은 지난 8일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지역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더불어, 여름 휴가철 코로나 19 방역과 재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굴삭기, 덤프,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동원해 응급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로 하천, 산사태 대비 등 관리와 순찰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과 태풍 장마 등 계속되는 장마철 우기에 대비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아산건설(대표 박오중)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산면 일대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고창군 아산건설, 주민천 제방 복구 봉사

5톤 트럭 2대 분량 토사를 제거

고창군 아산건설(대표 박오중)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산면 일대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집중호우로 약해진 주민천 제방이 붕괴됨에 따라 반입마를 논·밭이 침수되고 도로유실이 되는 등 피해가 컸다.

박오중 대표와 아산건설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주민천 주변 복구 작

업활동을 펼쳐, 15톤 트럭 2대 분량의 토사물을 제거했다.

반입 마을 주민들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준 아산 건설 직원들에게 새참을 가져다 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성수 아산건설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산면의 피해복구를 위해 울려 해준 아산건설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연일 수해현장서 농어민 위로

유기상 고창군수가 10일 오후 고수면 평지천과 아산면 동촌교를 찾아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민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전역에는 지난 7~8일 35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고수면 평지천 제방이 무너져 인근 논밭이 물에 잠겼다. 물이 빠진 현재도 제방 아래쪽이 폭 파여(세굴) 폭우 당시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특히 아산면 동촌교는 완전히 휘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로 주변 통행이 완전통제되고 있다.

아산면 대동리 동촌교는 아산농공단지에서 동촌마을을 연결하는 65m다리로 농공단지외 동촌마을 주민은 물론, 목동 남촌 주민 동촌 하갑, 중북, 상갑, 하갑 등 아산면 주민과 고수면 일부 농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유 군수는 뱀장어 양식장 측사 등도 찾아 농어민을 위로했다. 이번 폭우로 고창의 양식장에서 뱀장어 치어 약 12만 수가 폐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집계됐다.

앞서 제방이 유실됐던 아산면 주민천은 이날 정비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기상 고창군수는 "계속된 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다리 붕괴와 도로유실, 주택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에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한 군민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상 군수는 지난 7일부터 연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줄포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소화"

특조법 보증인 위촉식·교육

부안군 줄포면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줄포면사무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식과 교육을 병행해 개최했다.

이번 특별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줄포면은 이날 조순길씨 등 41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하고 추후 절차와 관

련 법령에 대해 교육했다.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진상 줄포면장은 "특별법 신청이 가능한 2년 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 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주차수급 실태조사·환경개선 기본계획 중간보고

정읍시가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도심 지역 주차환경 숨통 트기에 나섰다.

지역 내 주차시설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모든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시에 가장 적합한 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해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차수급실태조사·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과소장과 신태인읍장 수성동 등 8개 동의 동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들은 공영·민영·노상주차장 설치현황과 주차 수급률, 불법주차 분석 결과 보고를 들었다.

이어 주차환경 개선지구 선정안과

주차장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차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동장들은 각 지역 실정을 설명하며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 내용과 주민요구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주차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 개선 정책에 초점을 두고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적극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주차정책 사례 중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환경개선 계획 수립으로 주차장 불편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품격있는 안전행복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